



정현

페더러

내 질주를 막지마라

한국 테니스팬이 손꼽아 기다리던 정현(26위·한국체대)과 로저 페더러(1위·스위스)의 재대결이 성사됐다. 무대는 '제5의 그랜드슬램'이라고 불리는 마스터스 1000시리즈다. 정현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 남자단식 16강전에서 파블로 쿠에바스(34위·우루과이)를 2-0(6-1 6-3)으로 압축했다. 고작 1시간 18분 42초 만에 투어 대회 6

회 우승 경험이 있는 베테랑 쿠에바스를 꺾은 정현은 8강에서 세계 최강 페더러를 만난다. 페더러는 뒤이어 열린 제리미 샤프디(100위·프랑스)와 16강에서 2-0(7-5 6-4)으로 승리했다. 정현은 올해 1월 열린 호주오픈 남자단식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5위·독일), 노바크 조코비치(13위·세르비아) 등 세계 최정상 선수를 연달아 격파하며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대회 4강에 진출했다.

정현, ATP 마스터스 시리즈 첫 8강... 오늘 오전 11시 페더러와 리턴매치

거침없는 정현의 질주를 가로막은 건 페더러, 그리고 자신의 발바닥이었다. 정현은 페더러와 준결승 2세트 도중 기권했다. 조코비치와 16강 경기를 펼칠 때부터 오른쪽 발바닥의 물집이 말뚝을 일으켰고, 페더러와 경기를 앞두고는 진통제로도 통증을 다스리기 어려울 만큼 악화했다.

세계 최고의 선수와 제대로 맞붙지 못하고 집을 뺏던 정현은 "최고의 몸 상태로 경기하지 못한다면 상대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다음번을 기약했다. 페더러와 다시 맞붙을 기회는 예상보다 일찍 찾아왔다. 올해 5개 대회 연속으로 8강에 오른 정현은 호주오픈 때보다도 성장한 모습을 보

여주며 여전한 강호 대접을 받고 있다. 특히 3회전에서는 이제까지 두 번 만나 모두 패배했던 토마시 베르디흐(15위·체코)를 2-0(6-4 6-4)으로 꺾었다. 올해 37세인 페더러는 나이를 잊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호주오픈 우승 이후 세계 1위를 탈환한 페더러는 지난달 로테르담 대회에서도 우

승컵을 들어 올렸다. 통산 97번째 남자단식 투어 우승이다. 이처럼 페더러는 정현이 정상 컨디션으로 맞붙어도 쉽지 않은 상대다. 그러나 정현이 경기를 치를 때마다 성장하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 승리하지 못하더라도, 페더러와 전력을 다투는 것만으로도 기량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현과 페더러의 두 번째 맞대결은 16일 열린 예정이다. /연합뉴스

준비는 끝났다... 느긋한 KIA

이른 개막 맞춰 훈련... 시범경기 줄어도 문제없어

김기태 감독 "당장 내일이라도 개막하면 좋겠다"



우천취소에 도 걱정 없는 '호랑이 군단'이다. 15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KIA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시범경기가 우천취소됐다. 이날 KIA는 오후 5시에 경기를 갖고 야간 경기에 대비할 예정이었다. 지난 한국시리즈 이후 처음 조명탑 아래서 야간 경기감을 경험해보지만 계획이 틀어졌다. 하지만 우천 취소를 맞는 KIA 분위기는 느긋했다.

태 감독은 오키나와 캠프 연습경기 첫날부터 타석에 주축 선수들을 내보냈다. 주축 선수들은 예전과 달리 일찍부터 연습경기 일정을 소화하면서 빠듯한 개막일정에 대비했다. 여기에 또 하나 믿는 구석이 있다. KIA는 시범경기·연습경기 이월화를 통해서 선수단 전체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15일 경기가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KIA

는 16일 동국대, 17·18일 흥익대와 함평 챔피언스필드에서 연습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20·21일에는 서산 원정예정이 되어 있고, 23일에는 kt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연습경기를 치른다. 아직 시범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좌완 임기태는 16일 연습경기에서 4이닝 정도를 소화할 예정이다. 야수진도 시범경기조와 연습경기조로 움직이면서 실전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계획이다. 김기태 감독은 "16일 함평서 임기태와 이만우 등이 공을 던질 예정이다. 야수들도 나눠서 경기를 뛰게 된다"며 "캠프에서도 베테랑 선수들이 첫날부터 경기를 하고

그랬으니까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두 군데서 계속 시합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김 감독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 답변도 있었다.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시즌이 시작되면 좋겠다,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겠느냐?"라는 질문을 받은 김 감독은 "원래 뭐가 일이 있으면 빨리 해치워야 하는 성격이다"며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것은 준비가 부족했다는 느낌이다. 약하게 보이기 싫다. 당장 내일 모레 개막해도 좋겠다"고 답을 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2일 프로야구 미디어데이 개최



KIA 양현종·나지완 참가

투수 양현종과 외야수 나지완이 KIA 타이거즈의 대표선수로 카메라 앞에 선다. KBO가 오는 22일 오후 3시 블루스퀘어 아이마켓에서 2018 신한은행 MY CAR KBO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를 연다. MBC 스포츠플러스와 SPOTV, KBO 공식 앱,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생중계되는 이번 행사에는 10구단 감독들과 팀을 대표하는 선수 두 명씩 참가한다. KIA에서는 양현종과 나지완이 대표로 참석해 올 시즌 각오를 밝히고 재치 있는 입담을 뽐낼 예정이다. 두 사람 외에 오재원·유희관(두산), 손아섭·박진형(롯데), 모창민·노진혁(NC), 이재원·박종훈(SK), 박용택·김현수(LG), 서건창·박병호(넥센), 최진행·정우람(한화), 김상수·강민호(삼성), 박경수·고영표(kt)가 마이크를 잡는다. 본 행사에 앞서 1시 30분부터 미디어 인터뷰가 실시되고, 2시부터 30분간 아이마

켓홀 무대 앞 공간에서 팬들을 위한 사인회와 포토타임이 열린다. 본행사는 3시부터 시작된다. 입장권 신청은 16일 오후 2시부터 KBO 홈페이지(https://www.koreabaseball.com)를 통해 선착순으로 400명(1인 2매·총 800매)에 한해 이뤄진다. 또 KBO는 16일 오후 4시부터 KBO 공식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kbo1982)에서 선착순 안에 들지 못한 팬들을 위해 질문 이벤트를 진행한다. 미디어데이에 참가하는 10개 구단 감독 또는 선수들에게 재치있는 질문을 남긴 10명의 팬을 선정해 입장권과 팬 사인회 참여권(1인 2매)을 증정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6천명 앞에서 노래도 불렀는데...

유승철 "마운드에서 긴장 안돼"



▲나도 가입할까 = KBO리그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은 신한은행이 야구와 관련한 'KBO 리그 예적금' 상품을 출시했다. 고객이 응원하는 구단을 선택해 가입하는 1년제 상품으로 각 구단별 상품 가입자 수, 포스트시즌 진출 성적에 따른 우대급리가 적용된다. 또 선택한 구단의 정규시즌 승률이 그대로 우대급리에 적용되는

이색 상품이다. "리그 관전 재미를 더하고, 야구와 금융을 접목한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해 리그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게 신한은행 관계자의 설명. KBO리그 예적금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김기태 감독은 "나도 가입할까?"라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6000명 앞에서 노래도 불렀는데 = 목직한 직구처럼 자신감도 넘치는 '아기호랑이' 유승철이다. 유승철은 지난 스프링 캠프에서부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KIA

의 고졸 2년 차 우완 투수다. 그는 14일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나와 2이닝 1피안타 1볼넷 2탈삼진 무실점의 피칭을 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유승철은 "결과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스피드 내려고 하나가 힘이 너무 들어갔다"며 "오재원 선배한테 안타를 맞은 것도 아쉬웠다. 잘 들어갔는데 타이밍을 늦춰서 쳐내는 모습이 없었다. 6000명 앞에서 노래도 불렀는데, 별로 긴장하지 않았다"고 웃었다. 유승철은 지난겨울 우승을 기념해 열린 KIA의 팬 페스트 행사에

서 파격적인 무대 매너를 선보이며 눈길을 끌었다. ▲너무 못했어요 = '루키 포수'에게는 높은 프로의 벽이다. 동성호 출신의 포수 한준수는 우선지명을 통해 올 시즌 KIA에 입단한 고졸 루키다. 자신감 있는 성격으로 스프링캠프를 완주했지만 실전 무대에선 진땀을 흘렸다. 한준수는 지난 13일 두산과의 시범경기에서 김민식의 대수비로 들어가 프로 첫 경기를 소화했다. 한준수의 경기 소감은 "너무 못했다"였다. 그는 "처음 나갔을 때 긴장이 많이 됐다. 영상으로 경기 장면을 다시 봤는데 너무 못했다. 특히 포구가 좋지 못했다"며 울상을 지었다. 또 "확실히 아마추어 때와 공 움직임 등이 다르다. 더 열심히 많이 배우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

장애인 아이스하키 내일 동메달 도전



'작년 12월 이탈리아를 꺾고 동메달을 차지했던 기분 좋은 경험을 안방에서 재현하겠다'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에서 세계 최강 캐나다의 벽에 막혀 3-4위 결정전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동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한국은 15일 강릉하키센터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캐나다에 0-7로 무릎을 꿇으면서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이제 마지막 남은 희망은 17일 12시 같은 곳에서 벌어지는 이탈리아와의 동메달 결정전이다. 이탈리아는 한국 대표팀으로선 '악연'과 기분 좋은 추억이 동시에 있는 팀이다. 한국은 2014년 소치 패럴림픽 때 이탈리아에 대타를 잡히는 바람에 준결승 진출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연합뉴스

당시 한국 대표팀은 1차전에서 개최국 러시아를 연장 접전 끝에 3-2로 꺾는 '링크의 반란'을 일으킨 뒤 2차전에서 미국에 0-3으로 패했다. 마지막 3차전 상대인 이탈리아를 잡으면 4강에 오를 수 있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 1-3으로 석패하는 바람에 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결국 대회를 7위로 마감했다. 하지만 작년 12월에는 이탈리아를 맞아 기분 좋은 설욕을 하며 동메달을 차지했다. 캐나다에서 열린 챌린지 대회가 그 무대였다. 한국은 4개국만 참가한 이 대회에서 1차전 상대인 미국에 0-8, 2차전에서 캐나다에 3-9로 패했다. 하지만 3차전에서 이탈리아를 연장 대결 끝에 3-2로 물리쳤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다시 만난 이탈리아에 6-3 승리를 거두고 동메달을 따냈다. 소치 패럴림픽에서 메달을 가로막았던 이탈리아에 진 빛을 되찾은 셈이다. 이번 평창 대회도 캐나다 챌린지 대회와 비슷한 분위기다. 한국이 작년 12월 기분 좋은 추억을 되살리며 사상 첫 동메달의 꿈을 이룰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휠체어컬링 오벤저스, 팀 김 닦았네

예선 1위로 4강 진출

메달에 도전하는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 '오벤저스'가 중국까지 꺾고 예선 1위로 4강(준결승)에 진출했다. 백종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세계랭킹 7위)은 15일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장애인 올림픽) 중국(세계랭킹 2위)과 예선 11차전에서 7-6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한국은 총 11차례의 예선 경기에서 9승 2패를 기록, 예선 1위로 4강 진출을 확정했다. 한국과 같은 9승 2패지만, '승자승 원칙'에 따라 예선에서 캐나다를 제압한 한국이 더 높은 순위에 랭크됐다. 8승 2패인 중국도 같은 원칙에 따라 남은 한 경기에서 승리하더라도 한국보다는 순위가 낮다. 1위 한국은 16일 오후 3시 35분부터 4위를 차지하는 팀과 결승 진출을 결정할

4강전을 치른다. 한국은 이날 오전 영국을 꺾고 4강행 티켓을 거머쥔 상대에서 비교적 부담 없이 중국전에 임했다. 한국은 3엔드까지 3-1로 앞섰지만 4엔드에서 최이나 내주면서 3-5로 역전당했다. 한국은 5, 6엔드에서 각각 1점, 2점을 뽑아 6-5로 재역전했지만, 7엔드에서 1점을 허용하면서 승부는 6-6 원점으로 돌아왔다. 8엔드에서는 마지막까지 중국의 공세를 잘 막아내 1점을 뽑아냈다. 한편, 지난달 막을 내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여자컬링대표팀 '팀 김'이 있었다면 패럴림픽 대표팀은 5명의 성이 전부 달라 오성(五姓)에 어벤저스를 합친 '오벤저스'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오벤저스'는 스키 서순석(47), 리드 방민자(56), 세컨드 차재관(46), 서드 정승원(60)·이동하(45)로 이뤄져 있다. /연합뉴스